

아낌없이 나는 '문화 메세나' 임춘평의 삶



15일 고 임춘평 박사의 아내 박영자씨가 남편의 소장품 전시를 앞두고 남편의 나눔 정신이 담긴 작품을 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시회마다 아낌없이 그림 구입 봄되면 등록금 부탁 편지 쇄도

“당신이 숨어지 한 일은/ 당신과 하늘의 외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낳은 가장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 풍류와 인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 안녕하...”(1990년 10월 13일 고 임춘평 박사의 영결식장에서 문병란 시인이 낭송한 추모시 중).

생전 임춘평 박사의 집엔 그림이 걸려 있다기보다 널려 있었다. 그는 화가들을 돕기 위해 전시회가 열리면 꼭 찾아가 한 점 이상 구입했고, 맘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누구에게라도 아낌없이 그 그림들을 나눠줬다. 작가의 이름은 따지지도 않았다. 그림을 되팔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그의 소장품을 정리했던 무등현대미술관 정승규 관장은 “솔직히 전시장에 걸려고 하니 유명 작가의 작품은 몇 점 안 되고, 지금은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 이름없는 화가들의 작품이 더 많더라”라고 했다.

풍류와 인생을 사랑한 자유주의자

이 때문에 그의 월급 봉투는 성할 때가 없었다. 전남대의과대학을 나와 광주직업대학원 피부과장을 지냈던 1970년대, 당시로서는 큰 돈인 1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지만 집에 가져오는 것은 10만원 남짓이었다. 1981년에야 전세를 얻어 자신의 이름을 딴 병원을 열 수 있었다.

그는 지역 문단에도 큰 도움을 줬다. 군부의 폭정이 계속되던 1985년, 5월의 아픔을 노래한 문병란 시인의 시집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풀빛사 관화시선) 500권을 사들여 병원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생전 그는 곱상한 얼굴에 빛나는 눈, 실새없이 퍼부어대는 입담으로 유명했다. 서양화가 김영태씨는 “춘평이 그분 미친놈이지, 시끄럽고, 하지만 기인이야”고 추억했다.

광주시 대인동 녹두집에 앉아 아무나 붙잡고 삼삼소주를 거둬놓고, 헤르만 헤세의 시 ‘안개 속에서’를 독일어로 암송하던 낭만도 있었다. 흥에 겨워 앞뒤가 맞지 않는 가사를 붙여 유행가를 소리 높여 부르기도 했다.

1937년 함평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 아버지 집을 떠나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함평중, 함평농고를 나와 대학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이웃 사랑을 펼친다.

어렵게 공부한 그는 학생들에게 베푼 사랑도 남달랐다.

해마다 봄이 되면 그의 병원에는 편지가 수북이 쌓였다. 그에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그가 잘 퍼준다’는 소문을 들은 고학생들이 등록금을 부탁하는 편지였다.

1985년 광주 금남중학교에 VTR 35대를 기증하고, 진도 조도면 진북초교 전교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국립광주박물관 등지를 구경시켜주기도 했다.

남편이 가족보다는 남 돕는데 앞장서자 아내 박영자씨는 ‘악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죽기 2년 전인 1988년부터는 병원의 살림을 박씨가 맡았고, 광주시 동구 학동에 처음으로 임 박사의 이름으로 된 방 4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박씨는 여전히 이 집에서 남편이 사들인 작품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박씨는 “남 도와주던 사람이 잘 살아야 남들도 다른 사람이 돕는다”는 생각에 두 아들과 은자(46·주부·북화·신자(42·디자이너)씨 등 세 딸을 반듯하게 키웠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여곡장학재단의 이사였던 이영권(동문약국)씨 등이 “이러다 거덜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장학금 후원액수 아무도 모른다”

가족에게 누굴 돕는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 박씨가 기억하는 학생들만도 5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몇몇은 광주지역 의과대학과 미술대학의 교수가 됐다.

박씨는 “남편에게 도움받은 학생들이 혹시나 과거를 부끄러워할까봐 먼저 알은체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 소장품전은 한 번쯤 구경하라고 일일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고...”라고 했다.

임 박사의 둘째 딸 박희씨도 “아버지가 즐거워서 한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 보답을 바랄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생 중 임 박사의 유족을 찾아오는 사람은 광주 은혜학교 교사 한 명뿐이다. 이 교사는 임 박사의 소장품전이 열린다는 소식에 지난해 박씨의 집을 찾아와 일일이 작품을 뒤고 전시를 도왔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진양옥·양수아·박병보·최재창·손동·이강하·조규일·김종일·이창주·정병기·우재길·황영성씨 등의 작품 15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년 코리아 F1 재정 지원 급증”

정영조 카보 대표 발언...“지나친 과장·사실 왜곡” 비판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한국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 정영조 대표의 ‘과장 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자동차연맹(FIA) 2010시즌 시상식에 참석, “2010 F1 베스트 프로모터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F1 참가팀과 기자단 평가에 의해 올해 열린 19개 대회 가운데 최고의 레이스를 치른 F1 대회 운영자에게 주는 것으로, 2008년에는 싱가포르, 2009년 아부다비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 돌아가는 등 그 해 최초로 그랑프리 개최 국가에 의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오스트로프츠닷컴 등 외국 언론과의 인

터뷰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멋진 대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향후 대회를 위한 수백만(multi-million) 파운드의 재정적 지원 약속이 이미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내년 대회를 위한 주요 예산자원을 승인했고 지방정부도 F1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F1 대회에 대한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과장이 지나쳤다’,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컨대 F1 경주장 건설비 미확보 국비(312억)와 경주장 추가 공사비(국비 308억)는 현재 정부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운영비 200억은 확보한 게 전부가. 급기야 전남도는 경주장 건설비로 확보하지 못한 국비 312억을 도비로 책정했지만 내년 F1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예초(300억)보다 100억원이 삭감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총체적 부실’논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 의지도 찾을 수 없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내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KAVO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주장 건설 과정의 세부 계약 사항에 대해 결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동네상권 다 죽는다” 사할 건 저지

회고 2010

대기업 상생법 무시 우회입점 시도

6 대형마트 진출 마찰

중소상인들 강력 반발...곳곳 충돌

올해 광주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유통업체간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우회 입점, 기습 개점을 시도하고 농촌지역까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강행하면서 지역 사회에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잇따라 개점을 연기하며 지역 사회의 여론을 살피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 우회 진출 의혹을 받은 북구 매곡동은 갈등의 진앙지로 꼽힌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는 인근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지난 2월 북구청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2차례에 걸친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 끝에 지난달 30일 건축허가는 결정됐지만 시의회가 나서 대기업 유통업체에 우회입점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인근 학교의 재심청구까지 이어지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됐다.

최근 건축주가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인 상필리제코리아에서 상업시설 전문 시행사인 STS도시개발로 변경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해당 부지(9985㎡)에 대한 매각 공고까지 내면서 우회 입점 의혹은 더욱 커졌다.

STS도시개발이 매곡동 부지 매각 입찰 참가 조건을 ‘대형마트를 운영중이거나 대형마트를 운영하자는 법인, 직전 연도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합계 500억원 이상 법인’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이면계약설’을 주장하고 우회 입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완지구엔 건설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농협 하나로클럽도 광주시 슈퍼마켓협회에서 신청한 사업조정이 반려했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슈퍼조합은 “농협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건립취지에 맞게 유통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해야하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소매점을 내세워 공산품까지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대형마트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삼성테스코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삼성테스코는 중앙동과 치평동에 직영점 입점을 추진하다 사업조정으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지자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개점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구 동림동과 광산구 우산동에도 가맹점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삼성테스코 측이 새벽에 집기류 반입을 기습적으로 시도하면서 인근 중소기업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풍암·치평·우산·동림점 등 4곳은 광주시슈퍼조합이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지난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역 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삼성테스코 측은 당분간 입점을 보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광주시슈퍼조합 등 지역중소상인들은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도시에서 SSM 출점이 어려워지자 곡성 등 농촌까지 파고들고 있어 시골 장터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4대 보험료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에 보내드립니다. (2011. 1. 1 시행)

국민이 내주시는 소중한 보험료를 아껴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4대 보험료 징수(고지, 수납, 체납)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에 처리합니다. 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 급여 및 보상 관련 업무는 이전처럼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4대 보험료 고지서는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의 경우 하나로 묶어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주소로 발송됩니다. 단 건강보험에 가입 안된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관리하는 주소 순서로 보내드립니다.
- 보험료는 이전처럼 각각 따로 내실 수도 있고, 하나로 합산된 고지서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